

신영훈 아카이브 해제

1. 신영훈의 이력

신영훈의 자료는 시기적으로 1960년대 초반~1990년대 말에 걸쳐 분포한다. 이에 그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서 그의 이력사항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에 가족, 지인의 기록과 인터뷰를 진행하고 관계전문가 등을 통하여 이력을 확인한 결과, 2000년대 초반까지 그의 이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935년 9월 11일	개성 출생
1952년	서울 중앙고등학교 입학
1954년	서울 중앙고등학교 졸업
1955년~1957년	국립중앙박물관 미술실 조교 근무
1957년~1959년	육군사관학교 박물관 근무(군 대체)
1961년	쌍봉사 대웅전 해체수리 계획, 화엄사사 각황전 수리공사
1962년	서울 숭례문 중수공사 기와감독관 금산사 미륵전 공사 참여 『목조건축-국보도록 제6편』(공저)
1963년~1976년	문화재관리국 문화재위원회 제1분과 전문위원
1963년	스기야마 신조의 『고려말 조선초의 목조건축에 관한 연구』 번역 석굴암 중수공사 참여
1964년	『서울 남대문 수리보고서』(공저), 『한국고전물 상량기문집』 진주성 중수공사 참여
1965년	『석굴암 수리공사보고서』 익산 왕궁탑 중수공사 참여
1966년	덴마크 국립박물관 한국실 백안산방 건립
1967년	멕시코시티 차플테벡공원의 한국정 건립
1968년~	한국미술사학회 회원(전 고고미술)
1970년~1989년	민학회 회원
1975년	『한옥과 그 역사』, 『한국 고건축단장』 출판
1976년	『신라의 기와』(공저) 출판
1976년~1984년	문화재관리국 상근전문위원
1983년	『한국의 미-사원건축』 출판

- 1984년 『한국의 미-공실건축』 출판
- 1984년~1990년 조계산 송광사 중창역(지장전, 대웅보전)
- 1985년 『사원건축-국보 9권』, 『공실건축-국보 11권』, 『한옥의 定心』 출판
- 1986년 『한옥의 미학』 출판
- 1988년~1993년 사단법인 한국문화재 보존기술진흥협회 관여
- 1988년~1996년 목수 한옥연구소 운영
- 1989년 『한옥의 조형』, 『한옥의 건축도예와 무늬』(공저)출판
- 1990년~1991년 민학회 활동
- 1992년~1993년 프랑스 파리 고암서방(이응로화백 기념관)에 한국살림집 공사
- 1993년 안동하회마을 유홍우씨대, 선산 동호재 공사
- 1993년~1997년 경상북도 문화재위원
- 1994년 경상북도 청도 운문사 대웅보전 공사, 『절로 가는 마음 1』 출판
- 1994년~1996년 충청북도 진천 보탑사 삼층목탑 공사
- 1994년 충청북도 문화재 위원
- 1995년 『절로 가는 마음 2』 출판, 『어머니가 지은 한옥 심원정사』
한국문화재보존기술 진흥협회 발족
- 1996년~ 해라시아 문화연구소 운영.
- 1996년 법륜사 불일문화원 강의
- 1997년 우리문화 이웃문화
- 1998년 목수신영훈과 함께하는 우리문화 우리역사 답사기 1
신영훈의 역사기행 <조선의 궁궐×석불사.불국사×수원의 화성×운현궁>
- 1999년 신영훈의 역사기행<경주남산×안동하회마을×윤선도와 보길도>
<진천 보탑사 목탑>
- 2000년 해미(서산) 미륵사 창건역, 영국 런던 대영박물관 한국실 사랑방 공사
신영훈의 역사기행 <섬진강변의 문화회랑×송광사와 선암사>
『한옥의 고향』,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우리 한옥』
- 2001년 강화 학사재, 양평 상곡당 공사
한옥문화원, 지용한옥학교 설립.

2. 자료의 성격과 분류

2013년부터 2018년에 걸쳐 아카이빙한 신영훈의 자료는 시기적으로 1960년대 초반~1990년대 말에 걸쳐 분포한다. 그의 이력을 통해 보자면 20대 중반으로부터 60대 후반까지 문화재분야에서 적극 활동하던 시기로, 자료 역시 문화재 수리 및 기록에 관한 것이 가장 많다. 특히 문화재관리국 상근전문위원 시절 생산한 공문서 및 도면들이 상당량을 차지하며, 충청도 및 경상북도 문화재위원 시절 관여했던 문화재공사의 기록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신영훈의 자료는 공적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개인적인 생활기록도 많다. 가족 및 동일 분야에 종사하던 지인들과 주고받은 편지, 카드, 엽서, 청첩장 그리고 국내외 유적지 답사에 관한 기록, 세미나 및 방송출연에 관한 것이 그에 해당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신영훈의 자료는 시간적으로는 약 35년간, 내용적으로는 공적, 사적인 것을 모두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자료가 생산된 지역도 광범위하다. 자료 중에는 신영훈 자신이 직접 생산하지 않은 자료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이는 관계전문가 또는 지인들과 자료를 공유하였기 때문이다. 요즘은 연구자간 또는 관계자간 필요한 정보를 디지털화된 자료로 나누지만, 이것이 여의치 않던 시절에는 생산자가 출력 또는 복사하여 자료를 공유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사례라 하겠다.

신영훈의 자료에는 다른 건축아카이브와는 달리 문화재 전문가와 신영훈 개인의 삶이 혼합되어 녹아 있다. 따라서 자료도 건축도면에 국한되어 있지 않고 도서류, 문서류, 시청각류, 사진류, 기타용품 등으로 다양 다종하다. 해당 자료를 성격별로 분류해보면 <표 1>과 같다.

표 1 . 신영훈 자료의 분류체계

자료유형 자료	자료범주 내용	자료유형 자료	자료범주 내용
도서류	고도서	문서류	고문서
	논문		공문서
	단행본		독서카드
	보고서		메모
	전집		수첩
	정기 간행물		회의록
	원고		기타
도면류	기타	시청각	영상
	원도면	사진류	음성
	야장		사진
	사본		네거티브 필름
	청사진	포지티브 필름	
	현장 스케치	기타	건축 용품
기타	생활 용품		
			기타

3. 분류별 자료의 내용

3-1. 도서류

신영훈 자료 중 도서류는 크게 한글, 한자, 일본어, 영어로 생산된 것으로 나눌 수 있다.

한글로 생산된 도서류로는 논문, 단행본, 각종 문화재 수리보고서, 사전 및 자료 전집, 정기간행물 등이 있다. 건축자료로 가장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것은 문화재 수리와 관련한 기록이다. 요즘 문화재관련 보고서는 일정한 형식을 갖추어 집필한 후, 표지를 갖추어 출판하지만, 신영훈이 소장하고 있는 보고서는 책으로 만들어지지 않은 서류묶음 또는 노트의 형태다. 보고서 중 생산시기가 가장 오래된 것은 1961년의 것으로 「쌍봉사대웅전해체보수공사 계획서」와 「골동품 정리 및 보관요령의 건」에 관한 것이다. 1961년은 신영훈이 제대 후 문화재 현장에서 실무를 익히던 때로 설계계획서 기안지에는 ‘국립박물관’이라고 적혀있다.(그림 1) 신영훈은 1962년부터 1964년까지 남대문 수리공사에 기와감독관으로 참여하였는데, 이때의 공사는 일기형식으로 기록하여서 개인적인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그림2, 그림 3)

이후에 생산된 보고서는 문화재 현황조사, 보수실적 정리, 문화재 지정목록, 지정조사에 관한 것이 대부분이며, 공사내역서, 지방서, 공사착공보고서 등도 포함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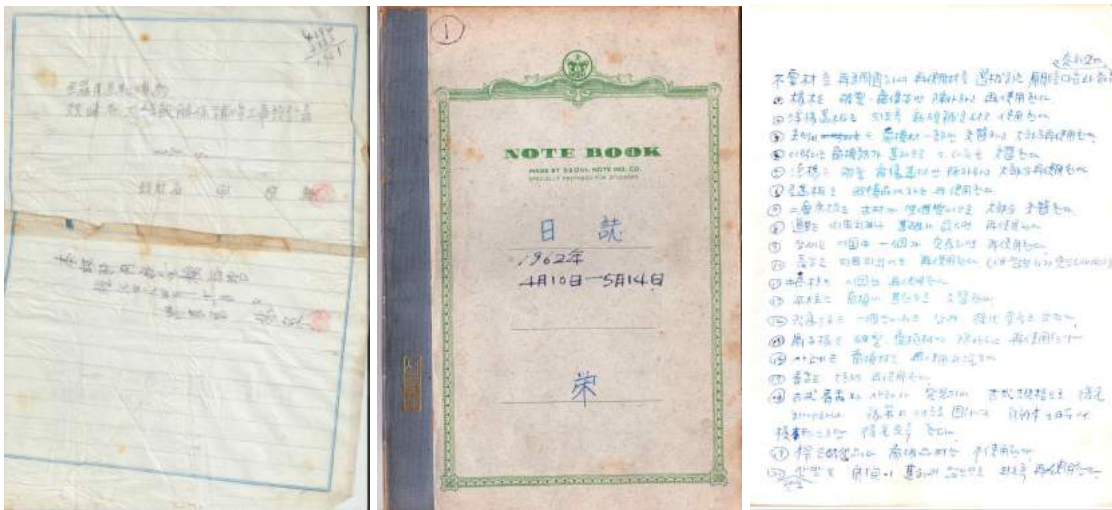


그림 1. 「쌍봉사대웅전해체보수공사 계획서」, 신영훈이 설계하고 임천이 남대문 공사당시 감독관으로 참여, 1962년 4월 10일의 기록으로 목부 설계내용을 검인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림 2. 「남대문 수리공사시 일지」, 신영훈이 남대문 공사당시 감독관으로 참여, 1962년 4월 10일의 기록으로 목부 설계내용을 검인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림 3. 「남대문 수리공사시 일지」, 신영훈이 남대문 공사당시 감독관으로 참여, 1962년 4월 10일의 기록으로 목부 설계내용을 검인하였음을 알 수 있다.

본인의 책 출판을 위해 저술한 육필원고 및 타이핑한 강의용 원고도 도서류에 포함하여 분류하였다. 신영훈은 『한옥과 그 역사』, 『한국 고건축단장』, 『한국의 살림집』, 『한국의 미』, 『한옥의 미학』, 『한옥의 정심』, 『한옥의 조영』, 『한옥의 조형』 등과 같은 저서 외에도 잡지나 신문에 짧은 글도 많이 실었다. 그 짧은 글들의 원고도 도서류로 분류하여 정리하였는데 육필원고는 주로 200자 원고지를 이용하여 집필하였다. 그중에 ‘목수 한옥연구소’ 운영당시 전화번호까지 찍힌 원고지가 눈에 띈다.(그림 4) 200자 원고지에 집필할 경우 사진이나 그림은 위치만을 표시하였으나 사진이나 그림이 많은 경우는 A4용지에 사진을 붙여 그 옆에 여백을 두어 원고를 집필하기도 하였다.(그림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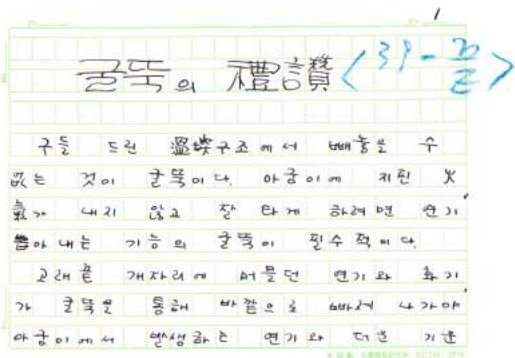


그림 4 . '목수 한옥연구소'라고 찍힌 원고지에 집필한 <글뚝의 예찬> 원고 첫페이지



그림 5. <기와의 마술> 육필원고

신영훈의 자료 중 한자로 기록된 도서는 신영훈이 지방 조사당시 수집하거나 기증받은 것들
 로, 해당 지역 유력가문의 문집(20세기) 또는 토지 측량기록인 양안(量案, 19세기 말)이다.
 지역의 민가조사를 위한 기초자료로써 필요성이 대두되어 수집하였다고 한다. 같은 목적으
 로 수집한 한자 자료로는 문서류로 분류한 ‘호구단자’가 있다. 이 자료들은 조사 당시 크
 게 활용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나, 유사 역사학분야에 널리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
 다.



그림 6. 『서구만면 연동양안대장』 표지



그림 7. 『서구만면 연동양안대장』 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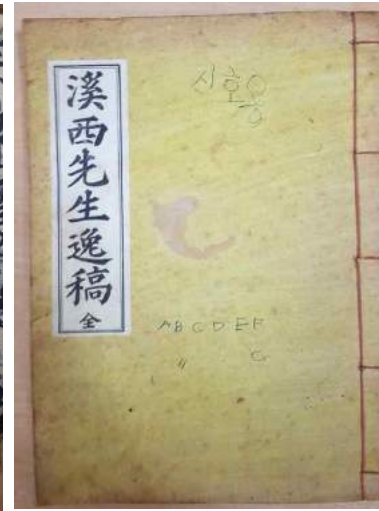


그림 8. 『계서선생일고』 표지
계서 성이성(成以性 : 1595~1664)의
2책 문집을 후대에 합쳐 편찬한 것

일본어로 생산된 도서 자료로는 책을 필사한 것이 대부분이다. 복사가 쉽지 않던 시절, 문화재 현장에서 도움이 될 만한 일본인의 연구내용을 옮겨 적은 것들로 주 출처는 일제 강점기에 간행된 건축 잡지 『朝鮮と建築』다. 책을 빌려 내용을 정리한 것도 도서류로 분류하였다.



그림 9. 『朝鮮と建築』의 내용을 필사하여 묶은 책의 표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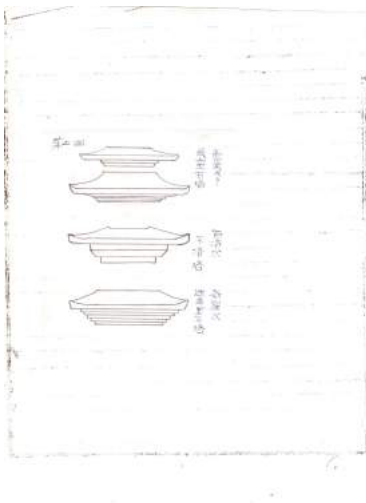


그림 10. 『朝鮮と建築』 필사본에 옮겨 그린 탑 세부도



그림 11. 『朝鮮語學史』의 내용을 요약정리한 노트

3-2. 도면류

도면은 현장에서 생산되는 야장(실측도, 스케치)과 이를 정서한 원도면, 원도면을 현장에서 활용하기 위해 제작한 복사본(청사진, 복사본)으로 구분할 수 있다. 신영훈 자료에도 해당 도면의 종류가 모두 있지만 생산시기에 따라 트레이싱 원도면과 청사진이 세트를 이루기도 하고, 트레이싱 원도면에 복사본이 세트를 이루기도 한다. 디지털 도면이 일반화된 최근에 와서는 원도면과 복사본이 구분되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원도면이 존재하지 않는다.

신영훈 자료에 포함되어 있는 도면류는 1960년대 초반부터 1980년대 중반까지 생산된 것으로 해당 시기는 그가 국립박물관과 문화재관리국에 근무하던 시절이다. 도면 중 일부는 본인이 직접 생산한 것이지만, 대부분은 도서심의, 현장감독, 현장조사 등을 위해 이미 작성된 것을 전달 받아, 도면 위에 필요한 정보를 기입해 넣은 것들이다. 이와 같은 용도의 도면들은 여러 관계전문가들에게 전달되지만 사용 후 폐기하여 남기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그러나 신영훈의 경우, 본인이 관여한 문화재에 대한 기록을 남기겠다는 취지에서 도면을 폐기하지 않고 보관하였으며 현재와 같은 상태로 아카이빙 할 수 있게 되었다. 아카이빙 된 전체 도면은 1,109매로 원도면이 353매, 청사진 570매, 복사본 57매, 야장 15매, 현장스케치가 82매다.

도면으로 제작된 문화재로는 개암사 중, 경북 상주군 상오리 7층석탑, 경북 상주 양진당, 경주 남산 능지탑, 경주 낭산곡마을, 경주 첨성대, 고달사지, 금관, 금산사, 금산사 미륵전, 서울 승례문, 내소사 대웅전, 성주사, 동묘, 반구대 암각화, 법련사 대웅전과 지장전, 법천사지, 보성 대원사, 봉감 모전5층석탑, 봉정사 극락전, 부산 망미루, 불국사 대웅전, 사직단, 삼척 신리 너와집, 상원사 동종, 서산 마애 삼존불, 석빙고, 성덕대왕 신종, 송광사, 수원 장안문, 신라 김유신묘, 연경당, 운문사 비로전, 익산 왕궁리 5층 석탑, 전남 쌍봉사, 전주 경기전, 정암사 수마노탑, 창경궁과 경복궁, 천전 의성김씨 종택, 청도 운강고택, 해미읍성, 화암사 극락전 우화루 등이 있으며, 설계된 도면을 바탕으로 신축된 건물 및 시설물로는 L회장 별장, 덴마크 국박 서재, 덴마크 한국실, 멕시코 공원 사모정, 심원정사, 운문사 대웅보전, 침사영, 효봉스님 탑비 등이 있다.

신영훈 소장 도면들은 문화재 지정 및 수리현장에 사용할 용도로 생산된 것으로 최종적으로는 보고서에 수록되었다. 그 때문에 현장에서 생산된 야장을 제외하고는 해당 문화재에 관한 보고서에서 도면을 찾아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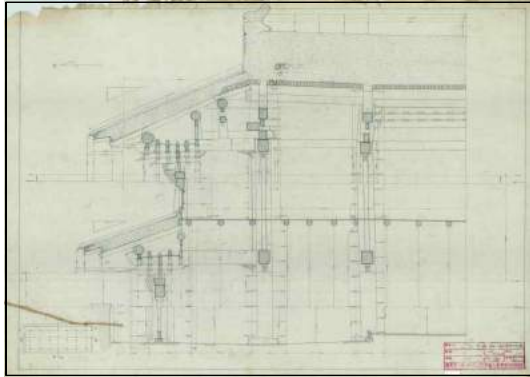


그림 12. 서울 승례문 2차 실측 단면도
1961년 9월 18일 작도된 도면으로 당시 승례문공사 기술부에 근무하던 박창호, 김택성, 오기수, 김광욱이 작성하였으며, 지붕부에 기와공사 감독관이었던 신영훈의 부분 가필이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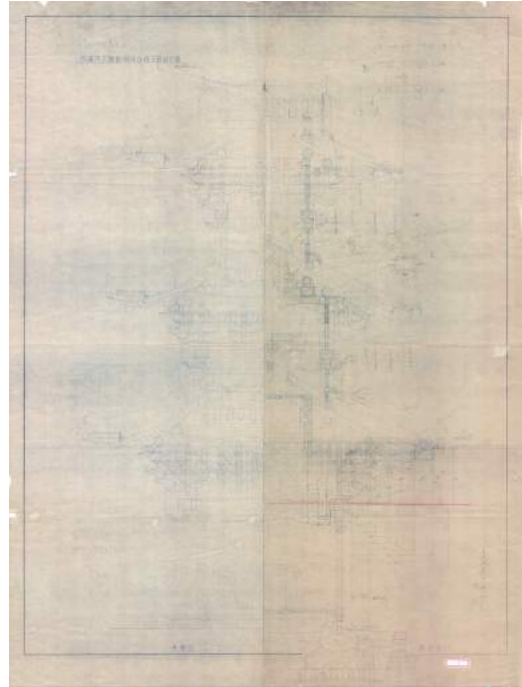


그림 13 . 쌍봉사 대웅전 해체수리 단면도-청사진
신영훈이 계획한 쌍봉사 대웅전 해체수리시 작성된 청사진으로 설계변경의 내용이 도면에 기록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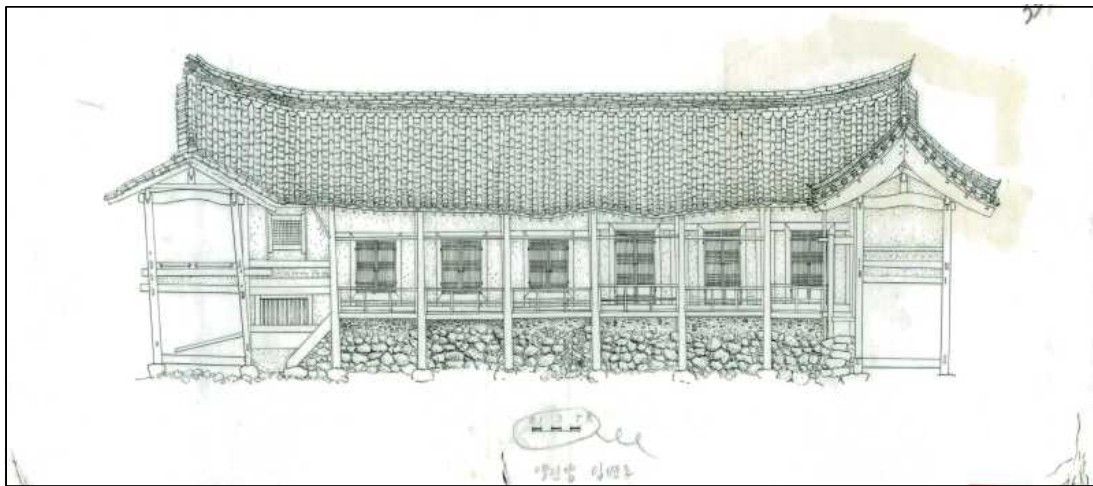


그림 14. 상주 양진당 입면도
신영훈과 같은 시기에 문화재관리국 상근전문위원으로 활동하던 유문용이 그린 것으로, 트레이싱지에 연필로 작성하였다. 해당 도면은 상주 양진당 보고서에 실렸다. 하단부에 보고서 작성을 위해 표시한 조판부호가 확인된다.

3-3. 문서류

신영훈 소장 자료 중에는 일상으로 접할 수 있는 것들 외에 ‘독서카드’ 라는 독특한 자료 묶음이 포함되어 있다. 독서카드는 메모장의 일종이다. 현재는 핸드폰과 같은 디지털기에

는 자문 시에 현장의 상황을 용이하게 스케치하기 위함이었다.

일반적인 독서카드와 규격이 다른 카드도 소장되어 있다. 이 카드는 1990년대 초반 본인이 직접 인쇄소에 주문·제작한 것이다. 카드의 규격은 약 폭 209mm × 높이 148mm로 다른 독서카드에 비해 월등히 큰 크기를 갖고 있다. 카드 좌측은 2개의 원형 구멍을 뚫어 링으로 묶을 수 있게 만들었다. 카드 우측 상단에는 ‘木壽 한옥 연구실’이라는 문구가 인쇄되어 있고, 우측 하단에는 ‘申榮勳’이라는 본인의 인장을



그림 18. 목수한옥연구실 시절의 독서카드(경주 문천의 월정교, 건너편 건물은 사마소)

찍었다. 카드 바탕에 따로 그리드를 만들지는 않았고, 몇 개의 칸을 표로 만들어 내용을 기입하도록 했다. 표 바깥쪽 상부에는 분류번호를 기록하도록 했으나 번호가 기록된 카드는 보이지 않는다. 표 상단에 제목에 해당하는 ‘사안명’, 문헌의 출전을 표기하는 ‘출전’을 두었고, 하단에는 내용과 ‘참고사항’을 기록했다. 그런데 이 규격의 카드에 부착된 사진들의 촬영 시기가 모두 제각각이고, 카드에 기록된 글자가 매우 정연한 특징이 있다. 즉 이 카드들은 다른 독서카드들과 달리 답사 또는 자문과정 중에 급히 기록한 것이 아니라 시간을 두고 차분하게 정리한 카드들이다. ‘木壽 한옥 연구실’이라고 인쇄되어 있기 때문에 모두 1990년대 초반에 작성한 것들이다. 이들 이외에도 유물카드 묶음을 비롯한 다양한 형태의 카드가 함께 소장되어 있다.

대부분의 독서카드는 카드를 전문으로 수납할 수 있는 목재와 철재서랍장에 보관하고 있다. 목재서랍장은 4칸에 5단, 총 20개의 서랍으로 구성되었고, 철재서랍장은 좌우 2칸에 5단, 총 10개의 서랍으로 구성되었다. 두 서랍장 이외에도 다른 몇몇 곳에 일부 독서카드가 분산되어 따로 보관된 것도 있다. 하지만 이는 그가 글을 집필하거나 자료를 찾아보기 위해 임시로 옮겨 놓은 것이며, 모든 독서카드는 서랍장에 보관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그림 19. 목재서랍장

서랍장에는 독서카드 이외에도 다양한 자료들이 소장되어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사진이다. 현재는 4 × 6inch 크기로 사진을 인화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예전에는 통상 3 × 5inch 크기로 사진을 인화했었다. 3 × 5inch는 폭 127mm, 높이 76.2mm에 해당한다. 앞서 독서카드(폭 130mm × 높이 77mm)와 거의 같은 크기임을 알 수 있다. 이런 까닭에 그는 인화한 사진들을 따로 앨범에 보관하지 않고 독서카드와 함께 서랍장에 보관했다. 하나의 건축물에 대한 사료나 자료들을 독서카드에 기록한 다음, 인화한 건축물의 사진을 같이 묶어 보관하는 방법이다. 대부분의 사진들은 흑백사진이며 1970년대 또는 80년대에 촬영되었다. 서랍장에는 소수이기는 하지만 엽서류도 포함되어 있다. 엽서는 통상 가로 148mm × 세로 100mm 정도로 독서카드 보다 크기가 큰 편이다. 지인들에게서 받은 엽서도 있고, 해외여행 중에 구입한 엽서도 포함되어 있다.

대체적으로 본인이 직접 생산한 독서카드 및 사진은 목재서랍장에 보관했다. 이 자료들은 늦어도 1980년대 후반 이전에 만든 것들이다. 반면 철재서랍장에 보관된 독서카드 및 사진은 다른 양상이다. 독서카드 및 사진에 표기한 주석의 필체가 그의 것과 다른 것을 상당수 확인할 수 있다. 즉 이곳에는 그가 직접 만든 자료 이외에도 지인 또는 제자들이 생산한 독서카드와 사진, 출처 불명의 기타 자료(유물카드, 전국주택조사 독서카드 등)가 함께 보관되어 있다. 비록 직접 생산한 독서카드라 하더라도 1990년대에 만들어진 것이 주를 이룬다. 앞서 ‘木壽 한옥 연구실’이라는 문구가 인쇄되어 있는 독서카드도 모두 철재서랍장에 보관되어 있다. 한편 목재서랍장의 사진이 흑백사진 위주라면 철재서랍장의 사진은 상당수의 컬러사진도 포함하고 있어 시대적인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목재서랍장에 소장된 독서카드 및 자료를 디지털 작업화한 결과 총 18,761개의 파일이 만들어졌다. 철재서랍장의 자료로 9,729개, 기타 별도 보관된 자료로 1,437개의 파일이 만들어졌다. 총 29,927건의 디지털 파일이 생성됐는데 이중에는 사진의 뒷면, 독서카드의 뒷면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약 20,000여장의 독서카드, 사진 및 기타 자료가 서랍장에 보관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독서카드는 각 카드가 담고 있는 내용에 따라 유형별로 나눠 보관했다. 서로 다른 유형의 카드를 구분하기 위해 하나의 서랍에는 여러 장의 간지를 삽입했다. 간지는 보통의 독서카드에 견출지를 붙인 후, 견출지에 유형의 대표 내용을 기록했다. 출판이나 대중에게 공개할 목적으로 독서카드를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논리적이고 일관된 원칙으로 유형을 구분한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하나의 사찰이라 하더라도 어떤 자료는 ‘사찰’ 유형에, 어떤 자료는 각 ‘건축용어’ 유형에, 어떤 것은 ‘석조물’ 유형으로 나눠 보관했다. 같은 『신증

획, 투자계획, 72년 오릉(五陵)지구, 73년 남산지구 …… 등 ‘경주종합개발계획’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또 독서카드 보관 서랍장에는 강화고려궁지, 미륵리사지, 조령원, 보국사, 흥륜사지, 용장산성(다른 사람의 필체) 등과 같이 문화재관리국에서 진행한 발굴 모습을 담은 사진이 소장되어 있다. 물론 그가 문화재관리국 재직시절 담당했던 왕궁답, 능지답, 추사고택, 관상감 관천대 등의 해체수리 모습을 찍은 사진 또는 보고서 내용들도 같이 소장되어 있다. 이와 같이 그가 소장한 독서카드는 개인적인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것과 문화재관리국 업무와 같이 공공 성격의 독서카드가 혼재하고 있는 특징이 있다.

이들 독서카드는 후에 그가 집필한 여러 서적들의 기초 자료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다음은 1983년 열화당에서 발행한 『한국의 살림집』 중에서 1장 마을의 고동, (4)절 고살에 수록된 내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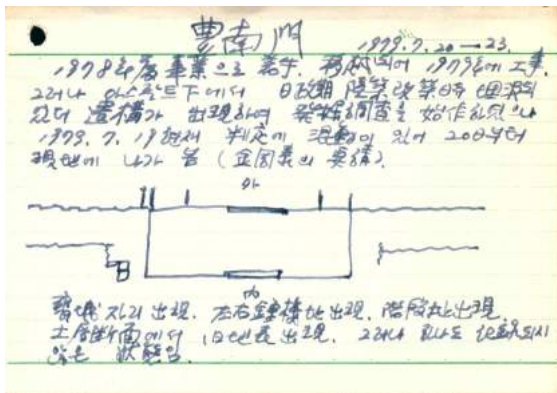


그림 22. 풍남문 (앞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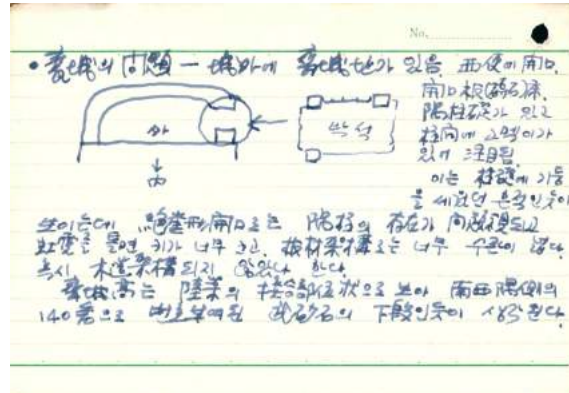


그림 23. 풍남문 (뒷면)

“1979년도에는 전주성(全州城)의 남문인 풍남문(豊南門)을 중수한 바 있었는데, 이때에 문의 남쪽에서 옛 옹성 자리가 발견되었다. 반원형으로 터를 잡은 이 옹성은 문이 서쪽으로 나 있었고, 그 문바닥에 이를 맞추어 간 박석이 지금도 남아 있다. 역시 많은 사람이 밟고 다닌 흔적이 역력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조사한 이들의 견해에 따르면, 임진왜란 이전의 유구임에 틀림없다.”

독서카드에는 풍남문을 방문한 날짜, 방문하게 된 동기, 풍남문의 배치, 발견된 옹성의 형태 및 박석의 출토 위치 등을 세세하게 기록했다. 『한국의 살림집』에 수록된 풍남문 관련 내용이 해당 독서카드를 기초로 작성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외에도 『한국의 살림집』에 수록된 여러 민가의 배치 및 평면에 대한 것도 모두 독서카드가 원자료 역할을 담당했다. 그와 함께 문화재 전문위원을 역임했던 유문룡에 따르면 그는 주택의 각 지역적 특징에 지대한 관심이 있었고, 새로운 주택을 접하면 항상 안주머니에

서 독서카드를 꺼내 현장에서 곧 바로 스케치했다고 구술했다. 서랍장에 보관된 독서 카드 중에는 무수히 많은 주택과 관련된 스케치가 포함되어 있다. 어떤 것은 각 지역별로, 어떤 것은 각 주택별로 특징을 기록했다. 어떤 것은 평면, 어떤 것은 입면을 자세히 스케치했고, 이들 자료를 모아 주택 유형별로 다시 카드를 구성하기도 했다. 독서카드에 수록된 주택 중 상당수는 현재 사라져 자취를 찾을 수 없는 경우가 많다. 물론 주택 이외에도 사찰, 서원, 향교, 누정 등을 조사해 기록한 독서카드 역시 많은 수가 소장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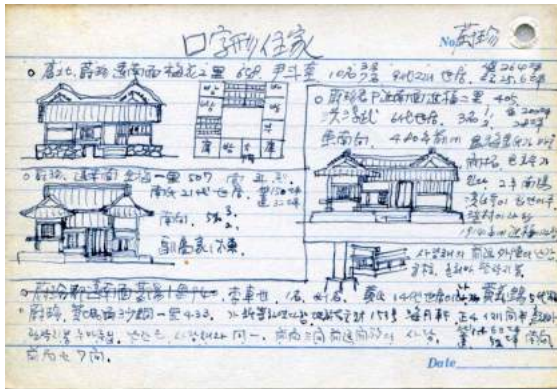


그림 24. □자형 주가 올진 (앞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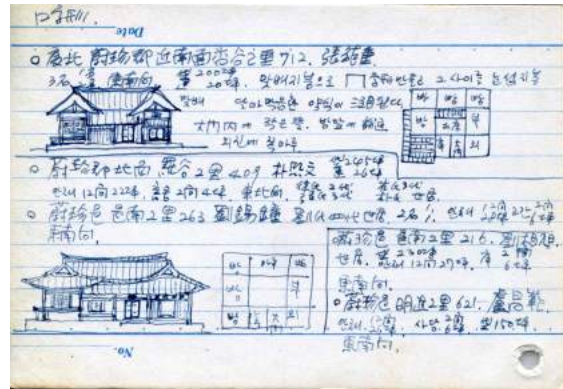


그림 25. □자형 주가 올진 (뒷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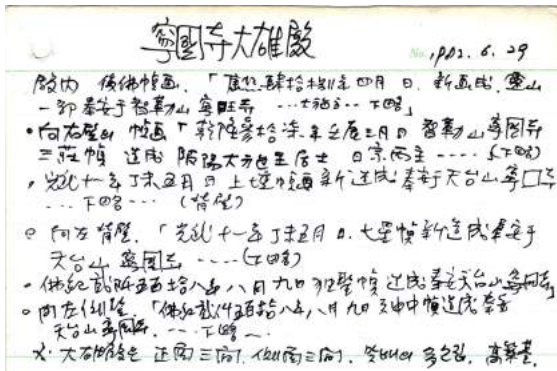


그림 26. 영국사 대웅전 (앞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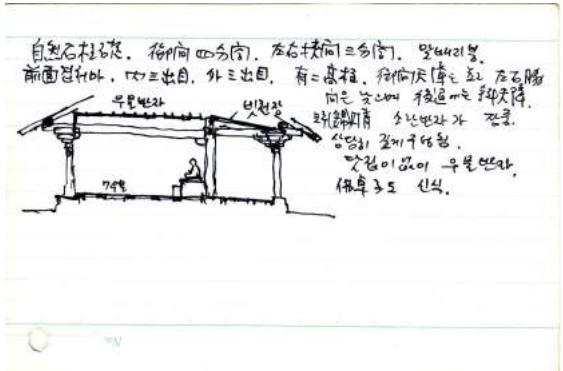


그림 27. 영국사 대웅전 (뒷면)

독서카드에는 역사사료를 옮겨 적은 것이 많다.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진 『삼국사기』, 『삼국유사』, 『고려사』, 『고려사절요』,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 등의 사료 이외에 당시에는 크게 다루지 않았던 의궤류의 서적도 포함되어 있다. 「무주군 적상산성선사양각 예산역비명세(茂朱郡赤裳山城濬史兩閣豫算役費明細書)」와 같이 아직까지 널리 알려지지 않은 사료도 포함되어 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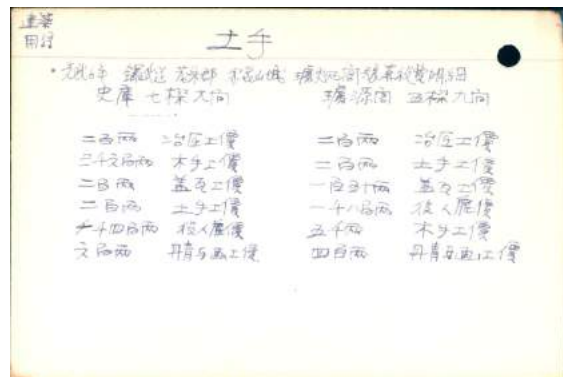


그림 28. 토수(건축용어, 적상산성선사양각 예산역비명세)

다. 이들 독서카드는 모두 한글이 아닌 한자로 기록한 특징이 있다. 당시에든 물론 여러 역사서의 번역본이 출판되어 있었지만 원서 강독을 고집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4. 시청각류

시청각류는 동영상 자료와 음성자료를 의미한다. 신영훈 자료 중 동영상 자료는 비디오테이프, 음성자료는 소형 녹음용 테이프와 카세트 테이프 구성되어 있다. 음성 자료 중 일부만 디지털 파일로 변환되었으며 자료의 생산 시기는 1981년부터 1996년까지다.

음성자료는 문화재 답사 중 진행상황이나 당시의 현장의 모습을 스케치하듯 구술한 내용들이 많으며, ‘한국의 살림집’, ‘신영훈 선생님과 함께하는 성보순례’, ‘신영훈의 민가기행’ 등과 같은 라디오 방송분과 풍수, 민화, 민속 등을 강의한 내용의 녹음자료도 있다. 중국 북경의 청화대학교에서 개최된 학술세미나에 참석하여 녹음한 자료를 통해서도 현재 원로학자가 된 주남철, 김동욱, 이상해 교수 등의 음성도 들을 수 있다.

*한국의 살림집-한옥의 온돌구조(음성자료 1983년 제작, 2014년 아카이빙 34번 링크)

*청화대학교 국제학술세미나 (음성자료 4번 링크)

3-5. 사진류

신영훈 소장 자료 중에는 약 47,000여장의 슬라이드 필름이 소장되어 있다. 슬라이드 필름의 규격은 일상적으로 많이 사용했던 35mm 필름이 대부분이다. 슬라이드 필름은 1980년도에 촬영한 것부터 소장되어 있다. 1980년 이전에 찍은 슬라이드도 소장목록에 포함되어 있으나 여러 정황상 이후에 복사한 사본으로 보인다. 1980년대 초반에 촬영한 슬라이드 필름이 양적으로 많은 편은 아니다. 당시는 아



그림 29. 강릉 임영관 삼문(1980)

직도 Negative 필름 사용이 일반적이었고, 슬라이드 필름 사용은 제한적이었다. 1980년대 초반에 Negative 필름으로 촬영해서 인화한 사진들은 독서카드와 함께 서랍장에 보관되어 있다.

약 47,000여장의 전체 슬라이드 필름 중에서 25% 정도인 12,000여장이 국내 건축물을 대상으로 촬영한 것인 반면, 75%인 35,000여장은 해외 건축물을 대상으로 촬영한 것이다. 월등

하게 해외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 슬라이드가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국내 건축물을 대상으로 찍은 슬라이드 중에서 약 절반은 그가 담당했던 송광사 대웅보전 신축공사(1988), 선산 동호재 신축공사(1993), 운문사 대웅보전 신축공사(1994), 보탑사 삼층목탑 신축공사(1996)의 건축공사 과정을 세세하게 찍은 사진들이다.

상당히 많은 수의 슬라이드가 해외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 것들이다. 그가 해외에 나간 것은 매우 이른 시기인 1960년대다. 이때 덴마크박물관 한국관(1966), 멕시코 한국정원(1967) 건축을 담당하면서 서유럽 일부와 멕시코를 방문한 일이 있다. 이중 멕시코에서 찍은 슬라이드 필름 80여 컷 정도가 보관중이다.



그림 30. 멕시코 한국정 준공식(1966)

예전에 우리나라 국민은 국가의 허가를 받아야만 해외에 나갈 수 있었다. 개인적인 해외 답사는 꿈도 꿀 수 없었다. 해외여행이 전면 자유화된 것은 1989년이다. 1989년에 그가 일본과 미국을 답사한 것도 해외여행 자유화의 영향이었다. 가장 먼저 일본을 방문했다. 이때 후쿠오카(다자이후), 구마모토(후나야마고분), 오사카, 교토(기요미즈테라), 나라(호류지)의 유적을 촬영한 슬라이드 필름이 보관중이다.



그림 31. 교토 기요미즈테라[清水寺](1989)

그는 이후에도 수시로 일본을 답사했다. 약 2년에 한번 정도 일본을 답사했는데, 북쪽으로부터 홋카이도에서부터 남쪽으로 오키나와까지 일본 거의 전지역에 걸쳐 답사했다. 그 결과 일본 건축을 대상으로 만들어진 매우 많은 양의 슬라이드 필름이 소장되었다. 1989년 11월 1일에는 미국 하버드대학의 초청으로 보스톤에서 강연을 했다. 이 당시 보스톤 뿐만 아니라 LA, 뉴욕, 워싱턴, 필라델피아, Hartford 등 미국의 주요도시와 건축물을 답사를 진행했다.

1990년 7월에는 중국을 방문했다. 당시는 우리나라가 중국과 수교하기 이전으로 국가의 허가 없이 중국을 방문할 수 없는 시기였다. 이때 방문은 우리나라의 여러 건축역사학자들과 동행한 것이었다. 당시 북경 청화대학에서 중국 건축역사학자들과 학술교류회를 가졌다. 학술교류회 발표 내용은 그가 작성하고 보관한 노트와 녹음테이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때 중국을 방문한 이후 1991년 4월에 다시 중국을 방문했다. 한국건축역사와 매우 관련이

깊은 중국 건축을 직접 확인하고자, 상해(上海), 북경(北京), 산서성(山西省), 섬서성(陝西省)의 건축물들을 답사 했다. 물론 중국건축역사책에 등장하는 유명한 건물들이 대상이었다. 이어 1992년에는 하남성(河南省), 감숙성(甘肅省)을 답사했다.



그림 32. 산서 남선사대전(1991)

당시 그의 문하에는 전통건축에 목마른 젊은 연구자들이 여기저기서 알음알음 모여들었다. 문헌을 통한 연구에 더해 실제로 한옥이 지어지는 과정을 체험, 연구하고 싶은 연구자들이었다. 이들은 그의 지도하에 같이 전통건축에 대해 토론하고, 답사하고, 실제로 건설현장을 체험하기도 했다. 그러던 중 1992년 8월 24일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사이에 수교가 이뤄졌다. 기존에 건축역사책에서 인쇄물로만 접했던 중국의 고건축을 직접 눈으로 보고 만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하지만 당시 중국을 혼자 힘으로 답사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다. 중국의 치안, 여행비용도 문제려니와 산간 오지에 자리잡고 있는 건축물을 혼자서 찾아가는 것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그와 젊은 연구자들은 1993년에 옛 고구려지역인 길림(吉林), 흑룡강성(黑龍江省)을, 1994년에는 북경(北京), 하북(河北), 산서(山西), 산둥성(山東省) 등지를 답사하고 돌아왔다. 답사를 성공적으로 마치자 또 다른 젊은 연구자들이 답사에 참여하고 싶어했고 답사에 참여하는 인원이 점점 늘어났다. 1995년에는 실크로드길인 신장(新疆)지역, 1996년에는 중국이 아닌 인도(중인도 및 서북인도), 그해에 또 다시 네팔, 티베트를 답사했다. 1997년에는 동북인도, 1999년에는 남인도, 2000년에는



그림 33. 인도 자이푸르 암베르성 (1996)



그림 34. 네팔 박다풀 (1996)



그림 35. 이집트 Luxor Karnak 신전(2000)

이집트, 2001년에는 중국 상해(上海), 항주(杭州), 소주(蘇州), 2002년에는 중국 운남성(雲南省)을 답사했다. 그가 소장하고 있는 매우 많은 해외 건축 대상 슬라이드들은 이들 답사과정에서 만들어진 것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3-6. 기타

신영훈의 자료에는 디지털화하기에 어려운 것들도 다수 존재한다. 그가 건축현장에서 사용하던 손때 묻은 건축용구나 물품, 그리고 여러 지역에서 수집한 민속 공예품 등이 이에 해당한다. 해당 자료는 건축 아카이브로써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려울지 모르겠다. 신영훈 개인생활 깊이 파고든 문화재 전문가의 삶을 읽기에 필요한 자료로 판단된다.